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매년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여러 지역의 이런저런 많은 문화행사를 접하게 된다. 그곳에 가면 꼭 있지 않고 찾는 곳이 오래된 책을 파는 서점이다. 좁은 골목길과 텃지터지 손때가 묻은 그 속에서 한 동안 있고 지냈던 색다른 작가의 책들을 발견한다. 그러면서 잠시 문화와 문화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것은 문화가 정체성을 매개하고 제작하는 으뜸가는 기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책 읽지 않는 이유가 인터넷 때문 만일까. 기실 순수문학 작품은 고사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사회 제 분야의 혁신을 이루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글로벌시대 삶의 방식과 경쟁력도 모두 문화에서 나온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문화라는 게 인위적으로 흥내 내고 만들어서 어떻게 경

오래된 골목길 그리고 문학

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우리의 문화가 사회 각 분야의 저변에 번지게 하려면 전통 속에서 소재를 발견하고,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사고의 틀을 바꾸는 능동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훌륭한 문학작품들이 대체로 자신이 처한 거주에 대한 소재와 풍경을 담고 있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우리가 문화라는 환경에서 무의식적으로 정서적 함양과 수용을 갖는 것은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가 아닐까.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과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들어,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제작되고 고안된 내면화된 도시의 환경이다.

지형의 역사성은 그 생김 모양과 기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문화적 정서가 쌓이면서 지리적 감각과 함께 우리들 삶의 문화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울은 급격한 현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옛 모습은 하나둘 자취 없이 사라져버렸다. 오늘날의 도시 풍경은 외형적으로 무미건조하고 개성 없는 고만고만한 고층건물로 삭막한 그 자체이다.

문화의 세기인 작금의 우리가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옛 멋과 지리적 풍물이 담겨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것은 결코 거창한 전시물에서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통에 뿌리를 둔 소프트웨어의 질량에서 좌우한다.

지금이라도 그나마 전통적 풍경과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지역이나 건물을 보존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또한 지역마다 옛날부터 이어오던 근대 건축물이나 문화의 원형을 발굴하고 확장시켜 육성하고, 필요에 따라 현대적 시각과 미감에 맞춰 재창조하는 작업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뉴욕 휘트니 미술관 재건축과 도쿄 모리 미술관 설계를 맡았던 건축가 리처드 글룩먼은 한국을 방문해 옛 건물을 무조건 부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다시 만들 수 없는 '시간'을 지우는 일이라고 했다. 그나마도 서울 강북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이 배어있는 지역이다. 현존하는 근대 건축물이 100여점에 남지 않은 서울을 과연 이대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씩 밀어버려야만 옳은 일인가.

한때 인사들은 전통의 모습을 지닌 가족들과 그곳에 오래된 책을 파는 고서점들이 꽤 여럿 있었다. 고서점이 주는 깊이 있는 풍경 때문에 자주 그곳을 찾았던 추억이 있다. 번성하던 청계천 고서점가도 서울의 문화적 지도를 그려주던 멋진 자리였다. 그러나 지금의 이곳은 어떤가.

사람을 이끄는 것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기꺼이 그 일부가 되고 싶은 정도로 매력적인 역사와 전통이 번덕스러운 유행을 가볍게 뛰어넘는 맛이 담겨 있어야 한다. 방금 공장에서 만들어진 듯 조잡하게 반짝이는 도시와 세월의 이끼가 커져서 내려앉은 도시는 결코 같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의 추억이나 삶의 질 보다는 개발로 인한 성과가 더 중요하고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면 안 된다는 논리가 앞서 있다.

문학의 소재를 깊이 있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은 시간의 무게다. 우리문학의 소재빈곤도 어쩌면 여기에서 비롯된다. 전통이 숨 쉬는 환경은 세계를 도약할 수 있는 문학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기 때문이다.

社說

언제까지 말만 할텐가

최근 불교계는 많이도 변했다. 종교개혁 등 직접적으로 불교계와 관련한 이슈뿐만 아니라 한전중공업 사태, 제주 해군기지, 현대 일가의 사재 출원 등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키웠다.

이 모습에 많은 불자들이 흐뭇하게 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내건 가르침이 이웃의 일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무언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 나쁘지만은 않은 일이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라는 점이다.

불교계는 수많은 성명서를 남발했지만 그 뿐이었다. 제주 강정마을 사태만 해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가톨릭 신부 25명이 강정마을을 찾아 자신의 목소리에 책임을 져던 것과는 참으로 비교되는 일이다.

어정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건도 그랬다.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때 보여줬던 적극적인 태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은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 삭감된 정부 예산이 있는 듯 마는 듯 갖고 있던 문화재에 민족문화의 옷을 입혔고,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까지 진행해 했음을.

올해는 초·중·대장경 조성 1천년의 해이다. 이로 인해 해인사를 비롯해 불교중앙박물관이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대장경이 팔만장이라고 부쳐진 말문을 읽고 익히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 불교계는 알아야 한다. 한마디 말을 할 때 마다 대중의 관심이 머무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말 끝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대중의 관심은 비웃음으로 바뀌고 만다는 것을, 불자들은 당당하고 싶다.

스타의 후배사랑을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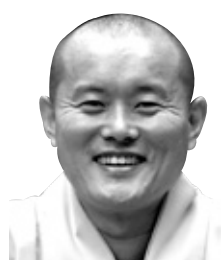
동국대 연극학부 출신 스타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선행의 횡수가 적지 않아서만은 아니다. 그동안 동국대 출신 스타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CF출연료를 기부하고, 학교발전기금 등을 낸 것은 새로운 것 없다. 이번 장학금 전달에 눈길을 가는 것은 그들의 후배를 향한 사랑 가득한 마음이 함께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덕화 감성우 임예진 이경규 이효정 홍향표 이경실 김상중 김유석 최준용 최우라 남성진 홍진경 채정안 이정재 최정원 소수진 류시원 김수호 등 이름만 해도 다 알만한 배우들이 매년 1인당 500만원씩 장학금을 내기로 했다. 이 돈은 각자가 직접 오디션을 거쳐 선발한 후배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단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을 통해 사랑과 관심을 전한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후배를 위해 직접 연기 지도도 하고 취업까지 돕는다니 이만저만한 정성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사자상생돼 왔다. 오늘날에도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현한 것은 스승과 제자가 눈길이 가는 것은 그들의 후배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재행무상이라. 세상 모든 것이 변하듯 기부도 트렌드가 있다. 이제는 숨어서 남을 돕는 시대가 아니다. 드러내면서도 끝까지 도와야 하는 세상이었다. 시곗바늘 물에서 사람을 건지던 보따리까지도 챙겨주고, 옷까지 말려줘야 하는 세상이다. 동국대 동문스타들이 보여준 현대식 자비를 동국대 불교대학을 비롯한 불교계 곳곳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정관 스님  
부산 원오사 주지

공양주 보살님이 햇바이라며 삶은 알밤을 내어왔다. 까슬까슬한 아랫부분을 푼하고 쪼개어 조심스럽게 과도로 찢질을 꺾었다. 달고 맛있는 밤의 속살이 조금이라도 달아날까 집중에 또 집중했다.

가을은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계절이다. 말 그대로 곡식과 과일이 풍성해 만가지 열매가 우리의 식탁을 가득 채우는 풍요로운 시기다. '천고마비' 즉, 하늘은 높고 땅이 살찌는 계절이란 말도 가을의 햇과일과 햇곡식이 영양소가 풍부해, 여물을 먹는 말 마저도 살이 찰 정도라고 풀이할 수 있다.

우리 원오사에는 이 가을을 더 없이 스산하게 맞이하고 있는 5명의 천진불이 있다. 13-14살 중학생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가을의 영양가 많은 제철음식으로 맛있는 밥상을 차려줄 어머니가 없다. 또, 추석날

뒷쪽지가 서글픈 아이들을 위해

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또래에 비해 학습능력이 부진한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의 인내심 한계가 폭발해버리기도 했다. 자라온 가정환경으로 배틀어져 점점 개구쟁이로 변해가지만, 사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오후 하교길에 공부방으로 곧장 향하며 성실히 개근하고 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공부방에서 특별수업을 부지런히 한 탓인지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남은 물론 수업태도는 보다 진지해졌다. 왜 공부할 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다 알아버린 눈빛이랄까.

개학 후 첫날이던 수학수업을 마친 밤 9시 무렵, 담당 교사인 최은영 씨(맑은소리 맑은나라 취재기자)가 짧은 차담을 청했다. 최 기자는 내게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이 달라졌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전에 비해 어른스러워 졌다"고 칭찬했다. 이어 비결을 묻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방학동안 매일 오전 특별수업으로 부족한 과목을 보충했더니, 이제 좀 공부하는 재미를 알아버렸나 봅니다. 다 선생님들 덕분이지요."

사실 방학 기간 중에 공부방을 운영한 이유는 학업 능력의 향상이 아니라 곧 갈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침과 점심 공양

을 먹이기 위해서였다. 가정에서 보살펴 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바깥으로 나돌다가 결국 나쁜 친구의 꾀에 빠져 탈선의 길을 걷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오사 인근의 반송동 일대는 밤이면 우범지역으로 돌변해 다섯 천진불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여름 내리쬐던 뜨거운 태양에 갈아말이 영근 알밤처럼 다섯 천진불은 용기와 희망이라는 열매를 키우고 있는 것일까. 어느 덧 차기어진 가을 바람 사이로 흩어지는 아이들의 뒷쪽지가 참 서글프다.

이 가을 나와 우리 가족을 넘어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비행이 간절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이시울 연불닷컴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불교포탈 부디피아 소평을 연불닷컴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8977    부산지사: (051)632-0064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u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ukukak.com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여려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력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래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土)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